

(10) 기본연구과제명 : 부산 로드맵 달성을 위한 APEC 무역원활화
개선방안 및 그 파급효과

■ 연구책임자

김 상 겸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5년 APEC은 부산 정상회의에서 부산 로드맵을 채택하고 APEC Bogor 목표달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방안에 대한 새로운 실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2005년 실시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 개방적 자유주의(Open Regionalism), 다자주의,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그 기본으로 하는 APEC의 경우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한 Bogor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APEC의 공동체 형성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Busan Roadmap to Bogor(이하 부산로드맵)를 채택하였음.
- 부산 로드맵은 개별실행계획 점검 방식 강화, 수준 높은 FTA/RTA의 체결, Busan Business Agenda의 채택, 능력배양 사업의 전략적 접근과 선구자적 접근방식(Pathfinder Approach)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Busan Business Agenda에서는 2010년까지 역내 무역비용을 5% 감소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회원국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별계획 및 APEC 차원의 공동 계획 발굴을 지시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무역원활화는 관세장벽의 완화보다 현실적으로 우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긍정적인 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무역원활화를 통한 역내 자유무역의 확산은 현재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역내 배타적인 관세장벽 철폐에 의한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중복성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으로 우려되는 Spaghetti

Bowls 효과를 완화하고 역내 통상협력의 무역창출효과로 야기되는 Domino Effect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통상정책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성적으로 부산로드맵의 전반적인 내용을 무역원활화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APEC 무역원활화 개선의 경제적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 상하이 선언(Shanghai Accord)이후 현재까지 APEC 회원국별 무역원활화 개선 정도를 구체적인 항목별로 조사 평가하고 시사점을 찾아 본 후 APEC 무역원활화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이에 더하여 하나의 사례분석으로 APEC 무역원활화 개선 노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한국의 입장에서 APEC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여방안을 정성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APEC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한 정량분석은 향후 5년간 5% 거래 비용 감소의 달성이 한국경제에 초래할 거시 경제적 효과를 계량 분석방식(중력모형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 이를 관세인하정책 등 여타 APEC 보고르 자유화정책과 비교해 보고자 함.

■ 선행연구

- 무역원활화의 개선이 APEC 회원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표본조사(Survey) 중심의 연구, 중력모형을 이용한 연구, 그리고 CGE 모형을 이용한 연구로 구분됨. 2000년 이후 발표된 대표적인 문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표본조사분석(Survey Analysis)으로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2000), “Survey on Customs, Standards, and Business Mobility in the APEC Region”, 김상겸·박인원 (2001),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등이 있음.
 - 또한 중력모형분석(Gravity Analysis)으로 Wilson, Mann, and Otsuki (2002), “Trade Facilitation: A Development

Perspective in the Asia Pacific”, Wilson, Mann, and Otsuki (2004), “Trade Facilit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 New Approach to Measuring the Impact”, Mann (2004), “Achieving the APEC Shanghai Objective: A Methodology to Benchmark and Quantify Trade Facilitation Effort in Financial Terms”, Kim, Sangkyom, Hongshik Lee and Innwon Park (2004), “Measuring the Impact of APEC Trade Facilitation on APEC Economies: A Gravity Analysis” 등이 있음.

-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연구로서 Kim, Sangkyom and Innwon Park (2002), “Measuring the Impact of APEC Trade Facilitation on APEC Economies: A CGE Analysis” 등이 있음.

■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별성

-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와 무역비용간의 함수관계가 계량화되어야 하며 선행연구들의 경우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경우와 기존의 국제 통계자료를 수합하는 형태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바 이중 APEC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방식이 APEC 무역원활화의 구체적인 내용(통관, 표준화, 기업인 이동, 전자거래)과 가장 부합함.
- 1990년대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무역원활화가 가져 올 수입수요의 증가를 가정하고 이의 파급효과를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단순한 시나리오 분석에 제한되어 있거나, 무역원활화의 개선이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무역비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수입수요의 증가를 초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선행되지 못한 단점이 있음.
- 2000년대 선행연구의 경우 그 서베이 자료가 2001년 자료로서 금융위기이후 최근 국제경제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수집된 표본 수 역시 그 총수 면에서 통계적 신뢰성이 떨어지는 수준이며, 전체 APEC 국가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로운 서베이를 실행할 것이며 그 서베이 자료 자체로서도 그 연구의 의의가 큼. 국책연구기관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실증분석에 집중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새로운 정책 idea를 얼마나 적절한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 이를 위해서는 좋은 data set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며 연구기관이 하여야할 가장 중요한 연구업무 중에 하나라고 판단됨(예로 GTAP data, PENN World Table). 본 연구의 핵심은 이러한 의미 있는 DATA의 구축임. 즉 통관, 인력, 표준화, e-commerce 관련해서 주요국의 중요한 부분을 survey해서 coefficient를 찾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임.
- 두 번째로는 중력모형 분석과 CGE 모형 분석 시 단순한 자유화 또는 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간접적인 비교를 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Chain Rule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의 Tariff-equivalent한 무역비용계수를 추정함으로써 그 파급효과의 직접비교가 가능토록 할 것임.
- 셋째, CGE 모형분석의 경우 GTAP Data Version 6를 이용함으로써 그 기준년도를 2000년으로 업데이트할 것임.
-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APEC 주요국의 무역원활화 노력을 분석, 평가하고 우리의 정책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연구자명: 김상겸·박인원(2001) - 연구목적: 무역원활화 개념 정립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문헌연구 - CGE 모델 - 설문조사 분석 등	- 무역원활화의 개념정립 - 교역장애 요인 분석 - 무역 원활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	- 과제명: “Trade Facilit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 New Approach to Measuring the Impact” - 연구자명: Wilson, Mann, and Otsuki (2004),	- Gravity model - Chain rule 제시	- 국제기구의 기존 원활화 관련 통계 자료들을 지수화 - Chain rule을 적용하여 무역 비용을 매개로 무역원활화 지수와 무역자유화 지수를 연계
본 연구		- 부산로드맵의 전반적인 내용을 무역원활화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점검 - APEC 무역원활화 개선의 경제적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 상하이 선언(Shanghai Accord)이후 현재까지 APEC 회원국별 무역원활화 개선 정도를 구체적인 항목별로 조사 평가 - APEC 무역원활화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APEC 주요국별 무역원활화 현황 분석 - 계량 분석(Gravity, CGE)	- 무역원활화 coefficient 개발 - APEC 주요국의 무역원활화 노력을 분석, 평가하고 우리의 정책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 주요내용

- 부산 로드맵의 주요 내용 평가 및 분석: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 APEC 주요국별 무역원활화 현황에 대한 정성적 평가
- 한국사례분석: 역내 무역비용 감소 방안의 정량적 분석
 - 무역원활화 관련 서베이 및 정리
 -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 무역원활화의 파급효과 분석 (중력모형과 CGE 모형분석)
 - 무역원활화 분야별 개선방안 및 실천전략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연구 방법

- APEC의 무역원활화 중점 추진 분야인 통관, 표준화,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의 무역원활화 지수 추정을 위한 서베이 실시. 우선적으로

한국을 사례연구대상으로 하여 한국수출기업의 대 APEC 회원국 무역 시 발생하는 무역원활화의 무역비용을 설문조사하고 이를 지수화 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할 것임.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각각의 무역원활화 항목(통관, 인력, 표준화, e-commerce)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각의 경우 각 수입국가의 원활화 정도에 따라 얼마나 추가적인 무역비용이 지불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함수관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01년 설문조사의 경우 완벽할 수는 없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고 APEC 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호응을 얻은 경험이 있음.

※제2단계로 2007년 APEC 경제위원회 및 각국의 APEC Study group networking을 이용한 APEC 주요국에 서베이 확대실시예정

□ 보완책 또는 서베이의 문제점 발생시 back-up용으로 Mann et. al. 등에서 이루어진 방식처럼 국제통계기관들이 나름대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원활화 관련 자료들을 지수화하여 이 둘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서베이 결과를 활용한 무역원활화 지수화

□ 무역원활화 지수와 무역량간의 탄력성 분석을 위한 중력모형 분석

□ 중력모형 추정치를 Back-of-the Envelope Strategy (Chain rule)를 응용하여 무역원활화와 실효수입가격간의 함수관계를 도출하여 CGE 모형을 구축

□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중력 모형과 CGE 모형 분석

□ 정성 분석을 통한 주요국별 APEC 무역원활화 최적관행 발굴과 함께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 관련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 기대 효과

□ 2005년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인 부산 로드맵에서 보고된 목표의 주요 실천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무역원활화의 지수를 개발함으로써 연

관 분석 작업의 계량화에 기여

- APEC 비전 실천을 위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부산로드맵의 지시사항인 무역비용 5% 감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을 발굴함
- 보고르 목표 실천과 beyond Bogor 방향 정립을 위한 핵심자료 제공

■ 협동연구기관

- 고려대학교 박성훈, 박인원 교수
공주대학교 박순찬 교수

■ 연구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11월